

# “國際적인 감각과 책임감 갖고 과학기술인들은 의식개혁을”

대담 / 閔 英 基 <경희대 교수 / 본지 편집위원>

대담일자 : 94년 12월 8일

대담장소 : 장관실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 독자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처의 조직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그동안 여러번 통폐합 등의 개편과정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출연연구기관의 개편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정부 행정조직의 개편은 주로 무역, 통상,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큰 개편은 없습니다만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정보통신 사업 관련 진흥사업을 정보통신부로 이관하고, 기술개발국에 기술인력국을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타부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내에서 양성하여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

### 세계화대비 실무부서 강화

그리고 연구조정실의 조정관들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폭이 넓어지게 됩

니다. 종전의 조정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연구과제나 연구프로젝트의 조정업무를 부처별로 수행했는데 행정상의 운영문제는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앞으로는 정부국책연구과제뿐

공동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고, 관리상 부서를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폐합이나 개편



◇김시중장관(右)이 지난 2년간을 회고하며 민영기 본지 편집위원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연구동향과 과제들을 각 주제별로 연구하는 등 순수하게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술진흥국에서는 주로 국민의 이해사업과 학회육성, 기술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시야를 넓혀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과학기술과 연구업적을 협의하고

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랍 7일 대통령께서 포항공대 방사광속기 준공식에 참가하셔서 과학기술계는 혁신과 의식개혁을 비롯한 실질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년전 장관께서 취임할 당시에도 상당히 강조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학기술인의 의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우리도 세계1등”의 信念으로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는 의식개혁운동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93년 하반기부터는 과학기술들에게 세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의 발전을 좌우한다는 의식, 바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스스로 국가경쟁력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존심」을 갖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장한 것이 「자신감」인데 ‘내가 하는 일이 인류에 공헌한다’는 마음자세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말해왔고 그 결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나 연구소, 대학의 종사자들을 비롯한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더 노력하여 개선한다면 최근 우리가 말하는 세계화가 곧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무역, 통상, 과학기술분야를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세계1등이 되자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세계1등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관께서 취임하신지도 약 2년이 되었습니다. 취임할 당시에 비해서 과학기술계와 과학기술인들이 달라진 것이나 개선된 것이 있는지, 또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어 놓았다 하는 자부심이나 보람이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차치하면 자화자찬이 되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과학기술인들이 멀리 보고 장래를 위해 일하면서 서로 단결하자는 것이었습니

다. 지난 일을 돌이켜볼 때 과학기술인들이 차별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의 일류화, 국제화에 역점을 두어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차별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의 연구기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구비에 있어서는 기초과학분야가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 7백억원 정도 되는 기초과학분야의 예산도 97년쯤 가면 지금의 배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을 쪽 돌이켜볼 때 적어도 평년작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의식개혁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개혁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핵폐기물 부지선정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장관께서는 TV의 CF에까지 출연하시면서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협조해 달라고 직접 호소하시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러시아에 떠맡긴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는데 언제 확정지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 핵처리장 후보 10여곳 선정

정부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근 읍·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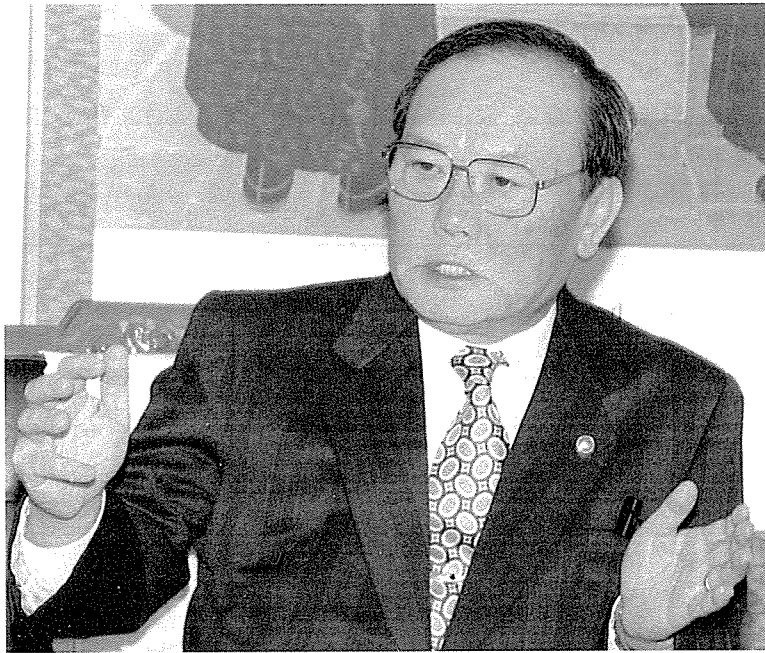
있습니다. 오죽하면 TV 광고에 장관이 직접 나와서 호소하셨습니까? 국민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입니다. 외국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번이야 가능하겠지만 우선 우리 자신이 안심할 수가 없을 뿐더러 양국간의 외교문제나 그나라 국민들의 정서문제도 고려해 볼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4개 원전(原電) 부지내의 임시저장 능력이 2000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전국의 가능한 지역 2백여개를 놓고 기술적인 문제나 지형적인 문제 등을 조사해서 현재 10개로 좁혔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94년 11월12일 과학기술처 차관을 단장, 과학기술처 원자력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94년 말까지 부지 확보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93년12월 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유치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역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도록 해야겠고 시설주변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모범 지역 마을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이후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해외순방시마다 수행하면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힘써오셨



◇과학기술인들은 국제적인 감각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시중장관

“

사명감 · 자존심 · 자신감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마음이 중요

”

는데 이러한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라고 하는 소위 국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동안 추진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과학기술 세계화 추진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001년 先進 7국 진입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국제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 5년 동안의 국제협력자료를 훑어보니 1천여개의 협정중에서 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협정은 단 하나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인력 교류가 아니면 과학자를 불러다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지요. 이제는 우리 인력수준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

등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APEC 정상외교 및 순방중에 「세계화 장기구상」을 밝히신 바 있지만 세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발전시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 일류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에서는 세계화의 기본방향을 세가지로 잡고 있는데 그 첫째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두번째가 고급과학기술인력 및 과학기술정보체계의 세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의 의식개혁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2001년까지 선진 7개국, 2010년까지 선진국중심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초부터 수립중인 「2010년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도 정부의 세계화 장기구상에 맞추어 보완,

범부처적으로 조속히 확정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과감히 개방하고 정부출연연구소별로 세계 일류화분야 2~3개에 중점을 두어 육성하고 해외 현지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립확대 및 세계적인 국제연구소의 국내유치에도 힘을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연수제도의 확대로 세계적 수준의 고급과학기술두뇌 양성에 힘쓰고 외국인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과감히 고용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소에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국제적인 연구소를 국내에 유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발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계가 지난 50년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경륜, 창조적 역량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조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원료와 석화 5백76명으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자들의 자발적인 민간기구로 탄생했는데 이 한림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늦었지만 한림원 설립 多幸

과학기술한림원은 제가 과총회장 대행때부터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그로부터 4년만에 탄생했는데 실은 벌써부터 있어야 했던 기구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3~4백년 전부터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고 그 나라 과학기술진흥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선진국대열에의 진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고, 국제적으로는 무한경쟁과 GR, TR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을 앞둔 시점

에서 모든 국민이 한림원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림원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활동의 중심체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림원은 과학기술계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석학들로 구성된 과학기술계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이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회원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의 중지를 모아 과학기술계 내외부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건의, 지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인의 권익 신장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현재 국가적 과제로 추진중인 세계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개혁방향 설정과 실천에 앞장섬과 아울러 바람직한 과학기술 문화창달에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도 한림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의 아카데미와 같은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일반국민들의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데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우대방안이 있는지, 더불어 과학기술인들에게 부탁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 대한민국科技賞 등 포상 확대

한나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을 우대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과 더불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브레인풀」을 설치, 운영하여 각종 정책자문위원회,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의사결정에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 생각이요 값진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신적 보상 제도로써 '대한민국과학기술상'을 비롯한 '한국과학상' 및 '한국공학상' 등의 각종 포상제도를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성과급 지급 등을 계속 확충하여 연구원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의 안정적 확보, 연구원 창업지원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등의 지속적인 배려를 할 것입니다.

개각이 되면 제가 이자리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새해를 맞아 과학기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국제적인 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적인 의식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공공복지를 위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좀더 성실하게 연구활동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학회의 학술활동진작을 위한 지원책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학회의 학술활동은 71년부터 정부지원 시책에 힘입어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의 성과를 상당히 이루었습니다. 특히 문민

정부 출범이후 학회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기초과학수준이 91년 32위에서 93년 27위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학회의 연구분위기가 많이 고조되고 있으나 인도나 중국, 대만과 같은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창의와 자생력 제고에 바탕을 둔 경쟁과 협동으로 학술활동의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보화·국제화·일류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세계의 우수학회와 경쟁잠재력을 갖춘 학회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현재 15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는 세계수준의 학회를 2001년까지 1백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과학과 기술」지의 발전을 위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과학기술」誌 대중성 중요

「과학과 기술」지는 학술지와 대중지 사이의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체제하에서 보다 대중성을 더 가미해서 읽을 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현상에만 치중하지 말고 과학철학이나 과학문화 그리고 과학정서를 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과학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사람들에게 읽히는 교양지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지면도 더욱 늘려 광고사업에 힘을 기울인다면 큰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지의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ST